

수행의 길잡이 선가귀감



<4> 법에는 불변(不變)과 수연(隨緣)의 뜻이 있으니

부처님의 세상이요 깨달음인 '그 무엇'에 대하여 근본 자리에서는 부처님이나 조사 스님도 어떻게 설명할 도리가 없다고 하였다. 체험을 통하여 '그 무엇'을 바로 알고 직접 깨치고자 하는 것이 선(禪)이다. 다시 말해 먼 길로 돌아가지 않고 화두로써 직접 단숨에 깨치고자 하는 것이 간화선(看話禪)이다.

그러나 이 공부는 아주 뛰어난 역량이 있어야만 한다. 전생에 해 놓은 공부가 많든지, 금생에 죽어라 공부하여 깨달음의 문턱까지 가 있는지 해 아만 가능한 것이다.

단숨에 깨달아서 단숨에 수행을 끝내는 이런 공부를 돈오돈수(頓悟頓修)라고 한다.

그러나 이 역량이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글이나 말을 방편으로 써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선가귀감> 3장에서는 말한다.

然法有多義 人有多機 不功施設

그러나 법에는 많은 뜻이 있고 사람의 근기에는 많은 차별이 있으니 여기에 맞추어서 방편을 쓸 수도 있다.

여기서 '법'이란 앞서 말한 '그 무엇'으로서 곧 깨달음의 자리이다. 법에는 영원히 변치 않는 '불변(不變)'의 뜻과 인연을 따라 그때그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수연(隨緣)'의 뜻이 있다. '법에는 많은 뜻이 있다'라고 한 것은 수연의 뜻을 따르는 것이다. 변치 않는 '그 무엇'이 중생의 인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불변과 수연은 바닷물과 파도
이것은 바닷물과 파도에 비유해 볼 수 있다. 바닷물이 여러 가지 모습의 파도로 나타나지만 바닷물 자체의 성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닷물 자체가 변하지 않는 것은 불변의 '그 무엇'에 해당되고 여러 가지 파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은 인연을 따라 그때그때의 모습이 달라지는 수연에 해당된다.

바닷물이 있어야 파도가 있고 파도의 실체는 바닷물기기에 바닷물이 파도이고 파

수연, 중생 근기따라 법 설할 수 있어 8만4천법문 자신 바로보는 지혜 길러줘

도가 바닷물이 된다. 바꾸어 말하면 불변이 수연이 되고 수연이 불변이 된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반야심경>에서 나오는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이란 말과도 그 의미가 같다.

사람들에게는 근본을 단숨에 깨칠 수 있는 돈오(頓悟)의 근기도 있고, 공부를 점차 닦아 나가야만 하는 점수(漸修)의 근기도 있다. 상근기에게는 돈오할 수 있는 법의 근본 자리를 바로 가리켜서 깨달음으로 들어가게 해야 한다.

화두선(話頭禪)은 화두를 통해서 이 자리에 바로 들어가고자 한다. 그러나 점수에 해당하는 중·하근기 사람들에게는 이 방법이 통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은 근기에 맞추어서 법을 설해 주어야 조금 알아들

는다. 이 근기에 맞추어 법을 설해 주는 것이, 인연 따라 나타나는 법이 그때그때 달라

진다고 하는 수연(隨緣)에 해당된다.

법에는 수연의 뜻이 있기에 중생의 근기에 맞추어서 글이나 말을 방편으로 쓰게 되는 것이다. 옛말에 "공(公)의 자리에서는 바늘 끝만으로도 잘못을 용납할 수 없지만, 사(私)의 처지에서는 큰 수레도 오고갈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근본을 드러내는 불변(不變)의 자리에서는 언어 문자가 가지는 허술한 틈을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 그러나 현상계를 드러내는 수연(隨緣)의 처지에서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얼마든지 법을 설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팔만사천 법문이 있게 되는 것이다.

팔만사천 법문은 부처님의 자비

중생은 본디 오묘하게 완성되어 있다고 한다. 다만 눈 밝은 지혜가 없으므로 윤회를 한다. 세간을 초월하는 번뇌라는 지해가 없으니 그들의 두렵고 어두운 장막을 어떻게 걷어낼 수 있겠는가?

그래서 부처님은 팔만사천 법문을 통하여 중생들에게 자신의 삶을 바로 보는 지혜를 키워주고 길러 주시려 한다. 중생은 자비로운 부처님의 큰 은혜를 입어야 비로소 괴로운 사바세계를 벗어나 행복이 가득한 부처님의 세상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된다.

부처님의 자비심으로 일게 된 은혜는 우리가 갚지 못할 만큼 많은 복을 바친다 해도 그 만분의 일도 갚기 어려울 만큼 크다.

서산 스님은 "이 단락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새로 공부해야 할 것을 드러내 보이고,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고자 한 것이다"라고 말하고, 이 기쁨을 계속으로 말한다.

王登寶殿 野老謳歌

임금이 높은 옥상에 오르시니
촌 늙은이 흥연충열 노래를 하네.
■원승 스님(승광사 인월암)

한입에 소옥~ 불교 상식

방장과 조실스님은 어떤 분?

결론부터 말할까요? 한 사찰의 상징적인 최고 어른으로서 대중들을 지도하고, 안거 결·해 때 때에는 법문을 하면서 수행의 지도가 되는 출가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방장과 조실스님은 법력이나 덕망이 크신 원로대덕이시지요. 방장(方丈)은 종림(叢林)의 최고 어른스님이고, 조실(叢室)은 선원이나 립정의 최고 어른스님이고, 종림에 대해 설명을 하

면, 방장과 조실이 어떤 분들인지 제대로 알 수 있게네요.

종림은 참선을 전문적으로 하는 선원, 경전을 공부하는 강원, 계율을 배우는 율원, 염불을 가르치는 염불원 등이 모두 갖춰진 큰 사찰이죠. 세속에 비유해 쉽게 설명하면 종림은 종합대학, 선원 등은 단과대학이라 할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방장은 '총장', 조실은 '학장'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방장은 원래 선종사찰에서 주지스님의 거실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 그러다 훗날 그 의미가 바뀐 것이지요. 조실은 훌륭한 선지식이 거처하는 방이란 뜻으로, 방장과 같은 위상을 갖습니다.

김철우 기자

한형조 교수의 금강경강의 (79)

붓다의 유머 그 날카롭고 따뜻한



2부 25강 혜능의 돈교(3): 새로운 교판(敎判)

혜능 포교의 특징은 자성불(自性佛)을 재창한 데 있다. 성의 정통은 바로 이 토대 위에서 있다. 누가 내게 선의 핵심은 무어나고 묻는다면 그것은 '자기 자신에 대한 전폭적 신뢰'라고 말할 것이다.

자성불(自性佛), 즉 나 자신이 부처이므로, 이제 팔만대장경의 가르침들을 굳이 익힐 필요가 없게 되었다. 진리의 빛은 나 자신의 힘으로 내 속에서 찾아질 것이다. 그러하여 불립문자(不立文字) 교외별전(敎外別傳), 즉 "정보에 의지하지 않는, 경전 밖의 진실!"이 선의 표어가 되었다.

한데, 이 진실에 어떻게 접근할까. 바깥의 것은 보기 쉬우나, 눈이 눈을 보지 못하듯이, 자기 속에 있는 것은 진정 보기 어렵다.

옛 부대에 새 술을

전통적 경전과 수행법들을 버렸으니, 선은 새로운 독자적 방법을 개발해야 했다. 그것이 선의 얼굴과 트레이드마크가 될 것이다.

육조 혜능은 그러나, 전통 전체를 내버려 기보다, 그 오래된 부대에 단순화 직설화의 새 술을 담는 쪽을 택했다. 그것은 나중 발전되는 선의 파격과 파천황에 비추어보면

오래려 온건한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는 오래되고 다양한 불교의 교화와 수련법들을 '마음의 즉각적 파지' 하나로 귀착시켰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본다.

1) 경전의 문자에 끌려 다니지 말고, 핵심적 취지를 깨치는 것이 중요하다. 그는 평생 <법화경>을 읽었다고는 어느 학승을 향해, "그 근본 취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법화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굴림 당하게 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이 차이가 소승과 대승을 가르친다고 말한다. 경전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것과, 그 취지를 장악하는 것은 천지현경(天地懸隔), 하늘과 땅 차이이다.

2) 소승과 대승에 대해 우리는 많은 얘기를 들어왔다. 그러나 혜능은 이를 새로운 각도에서 해석한다. 혜능의 새로운 교판(敎判)에 따르면, "소승(小乘)은 아직 문자의 숲에서 헤매는 사람이고, 중승(中乘)은 문자의 취지를 대강 깨쳐서 사람, 그리고 대승(大乘)은 바로 그 자각에 따라 사는 사람을 가리킨다. 그럼 최상승(最上乘)은? 그는 바로 그런 구차한 노력조차 필요 없는 사람을 가리킨다."

3) 불교가 개발한 다양한 수련법에 대해

서도 혜능의 생각은 파격적이다. 그는 "마음은 거울이 아니므로, 어디 손뼉 대가 없고, 손을 대려고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한다. "마음은 거울이 아니니, 어디 먼지 앉을 데가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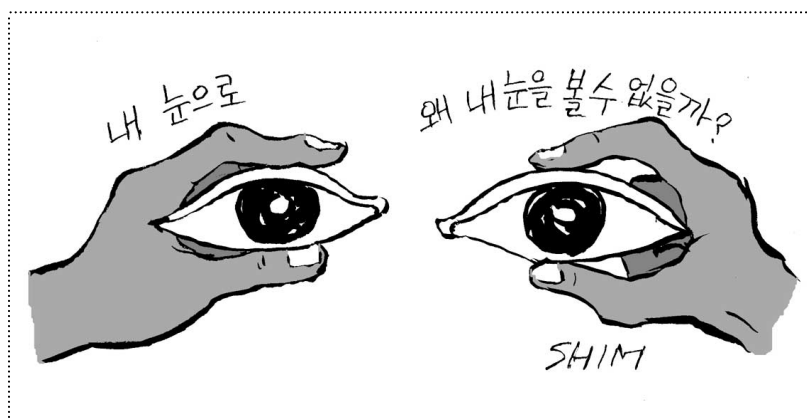
그는 삼학(三學)이라 하여 주어진 계율을 지키고, 특정한 명상에 몰입하며, 불교식 지혜를 터득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가르쳤다. 그에 의하면 삼학이란 요컨대 "마음에 아무런 내적 외적 갈등이 없는 것, 자신의 불성이 아무런 장애 없이 스

행복동 사람들

진정한 부자
배종훈 (bjh4372@hanmail.net)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바로 보세요. 그것도 분에 넘치지 않은지요.

소승, 문자 숲에서 헤매는 사람들



돈교의 확산 진전과 더불어, 자아는 극단적으로 고양되었다. "내가 곧 부처이다"는 자연스럽게, 기존의 전통 전체를 격하고, 급기야 창시자의 신성까지 모독하는 파천황을 연출하게 되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보자.

단하(丹羅天然 739-824)는 법당의 목불을 쪼개 캠프파이어를 해 버렸다. 이 정도

는 약과에 속한다. 임제(臨濟義玄 ?~867)는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라"고 권했고, 운문(雲門文偃 864-949)은, "붓다가 태어나서 일곱 걸음을 걸으며,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고 했는데, 내가 그 자리에 있던데, 몽둥이로 때려잡아 굶주린 개에게 던져주었을 것을..."이라고 외쳤다. 그러나 이 이상 파격적 정신은 양날의 칼이었다. 전통과 접맥되지 않고 파격과 기행에 의존하면서, 선의 생명력은 오히려 쇠퇴하고 고갈되어갔다.

노력이 행해졌다. 선의 정신에 어울리지 않게, 선의 역사를 적은 책들이 나오기 시작했고, 선의 정당성을 변명하기 위해 새로운 계보까지 씌어졌다. 그에 의하면 말마는 인도의 법통을 28대째 이은 사람으로 등록했고, 6조 혜능이 선종사의 정식 법통으로 낙착됐다. 이와 더불어 선은 자신들의 독자적 방법을 제도화할 필요를 느꼈고, 그 결과 스승과 제자 사이에 오간 법담을, 깨달음을 위한 명상의 도구로 삼는 간화(看話)가 유행하기 시작했다.

<육조단경>과 <금강경 구결>은 같은 정신의 산물

선의 역사를 간략히 살펴봤다. 또 왜 잊길로 됐느냐 하면, <육조단경>을 <금강경 구결>과 견주어보기 위해서이다. 누구든 두 작품의 해석학적 정신이 같은 계를 달리고 있다는 것을 눈치 챌 것이지, 틀림없이 <육조단경>은 <금강경 구결>과 동일한 사람의 손으로 지어졌다.

<육조단경>이 기존의 전통적 불교를 돈교적 이념에 따라 파격적으로 재재위한 것들로 점철되어 있듯이, <금강경 구결> 또한 금강경의 본래 맥락에 충실하지 않고, 자성불(自性佛)을 중심으로 한 자유롭고 파격적인 변주로 이어 나간 것을 보라.

저번 강의에서 <구결>이 호법(護法)을 "바깥의 여래(如來)가 아니라 자성여래(自性如來)가 자성호법(自善護念)할 뿐"이라고 강조하는 것을 기억할지 모르겠다. 거기서 부촉(付觸) 또한 "저 밖의 여래의 약속이 아니라, 청정(淸淨)한 생각들이 이어져 나가도록(付觸)"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 동서양에 예외가 없다.

선은 8세기를 지나면서 활력을 잃기 시작했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다양한

■한국학중앙연구원